06-28 | 2006.7.21.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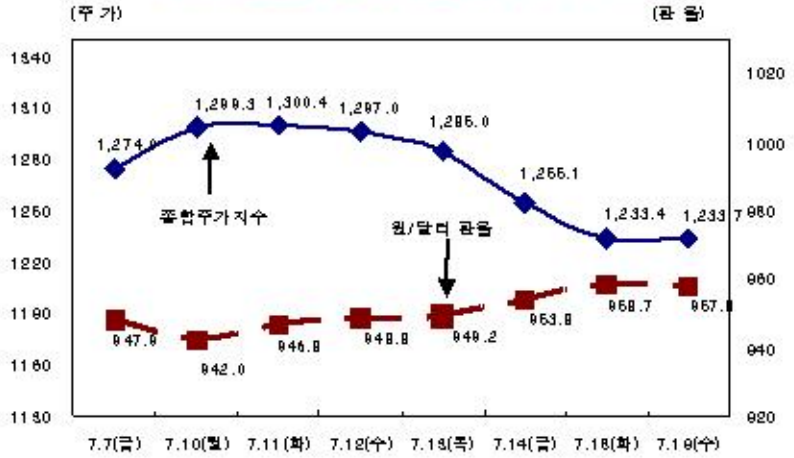
■ 한미 FTA의 성공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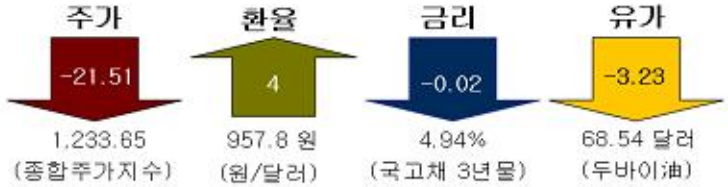
– 한미 FTA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과제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 7~7.19)





1,233.65	957.8 원	4.94%	68.54 달러
(종합주가지수)	(원/달러)	(국고채 3년물)	(두바이油)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미 FTA의 성공 조건

– 한미 FTA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과제 1

주간 경제 동향 13

□ 실물 부문 : 청년 실업률 8%로 급등 13

□ 금융 부문 :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거시경제실 :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미 FTA의 성공 조건 - 한미 FTA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과제

국내 경제의 현실에 입각해 볼 때 한미 FTA 체결의 당위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적 구조를 가진다. 2001~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수출/GDP)는 연평균 33.2%, 무역의존도(수출입/GDP)가 63.8%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국내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WTO 체제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적 개방화가 추진되고 있고 지역주의 역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 개방화는 세계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현재 RTA(Regional Trade Agreement)는 FTA를 포함하여 197개에 달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교역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한-미 FTA 체결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거론되는 국내 시장 잠식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웰빙 트렌드에 의한 국산 농수산물 수요 급증, 수입산 쌀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외면, 국내 특산물로 개발된 파프리카의 수출 확대 등 농업 부문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 FTA의 높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성공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문시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일부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의 한-미 FTA 추진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한-미 FTA에 대한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여, 관련 부처, 당정간의 불협화음이나 혼선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 차원의 연구, 양국간 공동 연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한-싱가폴의 産官學 공동연구, 한-ASEAN의 전문가 그룹 구성, 한-일의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는 이미 협상 개시 이전에 활발한 국내 및 국가 간 연구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의 경우 국가 간 공동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국내 연구들도 대부분 협상 개시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민간 차원의 업종별 영향 대책반 운영, 한미 경제인 FTA 포럼 등을 구성하여, 분석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목표대로 미국과의 FTA가 약 1년 여 만에 타결될 경우, 많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졸속 협상이 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 시한의 장기화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 합의된 품목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시행하는 한-멕시코간의 SECA(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와 같은 낮은 수준의 FTA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의 한미 FTA의 실익 제시가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한 한미 FTA의 효과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 선진 경영 기법 도입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생존권 박탈 등의 FTA 반대론에 대한 대응 논리가 매우 취약하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 무역의 확대가 국가 경제 전체는 물론 민생 경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개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쟁력 취약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장기 대응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비교 열위 부문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보상과 같은 미봉책 위주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개방화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산업들의 성쇠, 인력 이동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장기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내 협상이 불충분하다.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 사회 내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지속적 대화, FTA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에 주력하여, 한미 FTA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홍보 전략 실패를 들 수 있다.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 언론 및 여론의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한미 FTA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과제 >

한미 FTA의 당위성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	- 2001~05년 연평균 수출액/GDP 비중 : 33.2% - 2001~05년 연평균 무역액/GDP비중 : 63.8%
세계화의 대세	- 2006년 7월 현재 197개 자유무역협정 발효 -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
부정적 효과 극복 가능성	- 웰빙 트렌드에 따르는 국산 농산물 선호 - 수입쌀의 국내 판매 부진 등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체결 3건, 협상 진행 5건 (한미 FTA 포함)
한미 FTA의 추진 현황	2006년 2월 협상 개시, 2007년 3월 타결 계획

한미 FTA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정부 추진 의지 혼란	- 정부 및 여당 내 반 FTA 기류 형성 - 국민들의 혼란 더욱 가중
국가간 공동 연구 및 민간 차원의 연구 부족	- 싱가폴, EFTA, ASEAN, 일본 등과의 FTA는 협상 개시 이전 양국간 공동 연구 및 교류, 민간 차원의 연구가 진행
협상 일정 현실성 결여	- 한칠레FTA : 2년 10개월, 한일FTA : 현재까지 2년 9개월 - 한미 FTA : 1년 여 만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지 의문
실익 제시 부족	- 정부가 제시한 기대 효과가 지나치게 거시적, 추상적, 비경제적 ⇨ FTA 반대론에 대한 대응 논리 부족
취약 부문 대응책 미흡	- 사회적 보상과 같은 미봉책 위주 - 원활한 인력 구조조정 정책 부재
대내 협상 불충분	- 형식적 설문 조사 - 협상 개시 하루 전에 공청회 개최
홍보 전략 실패	- 민감한 사안의 구체적 입장과 협상 결과 공개 미흡 - 언론의 억측과 추측성 보도 난무, 여론 악화

보완 과제

- ❖ 추진 의지의 명확 : 관련 부처 간, 당정 내 불협화음이나 혼선 방지
- ❖ 민간 연구 및 한미 공동 연구 추진 : 업종별 영향 평가 대책반 운영, 한미 경제인 FTA 포럼 구성 등
- ❖ 무리한 협상 추진 지양 : 협상의 장기화도 염두에 둔 여유 있는 일정 조정, FTA보다 낮은 수준의 무역 협정 방식도 고려
- ❖ FTA의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 제시 : 민생 경제, 소비자 효용에 대한 구체적 이익 제시
- ❖ 산업 구조조정 전략 수립 : 비교 열위 부문 종사자들의 취업 안정 대책 수립 및 즉각 시행
- ❖ 적극적인 국민적 합의 도출 : 다양한 여론 수렴 채널 가동, 民官간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병행
- ❖ 불필요한 의혹 제거 : 협상 과정 공개는 아니더라도 민감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부 입장 공개

□ 한미 FTA의 성공 조건 - 한미 FTA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과제

1. 한미 FTA 해야 하나?

○ 한미 FTA 체결의 당위성은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 세계화의 대세 등에 있으며, 예상되는 국내 경쟁력 취약 부문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 한국 경제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이용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른 경제 성장은 공업화와 무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함

- 2001~2005년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33.2%이며, 무역의존도는 63.8%로 점점 경제의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연대별 수출의존도 및 무역의존도 추이 >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1~05
수출의존도 (수출/GDP)	22.5%	29.9%	27.0%	33.2%
무역의존도 (수출입/GDP)	52.7%	60.2%	53.5%	63.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수출, 수입, GDP는 명목 달러 기준임.

○ (세계화의 대세) 개방화 및 세계화의 국제 경제 질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흐름을 좇지 못하면 성장잠재력을 상실하게 되는 생존의 문제임

- **최근 개방화의 추세** : 특히 최근의 무역 협정은 WTO 체제의 다자간 협정보다는 RTA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또는 FTA를 통한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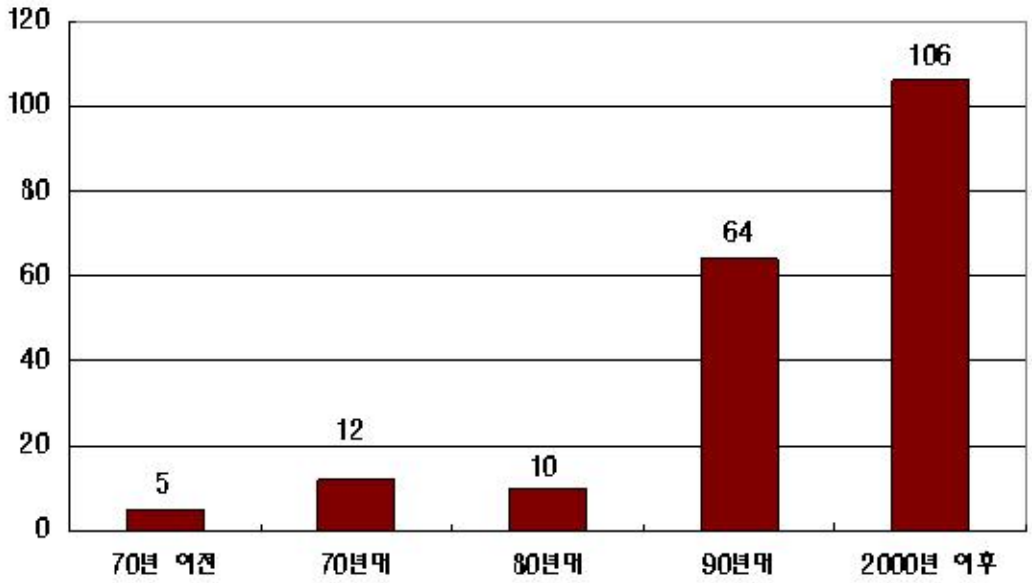
자유 무역 협정에 절대적으로 의존

- 이는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UR), 도하개발아젠다(DDA) 등이 개별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여 세계화가 한계에 직면하였기 때문임
- 이에 대한 대안으로 RTA나 FTA를 통해 특정 경제권간 특정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크게 활성화되는 지역주의가 확산중임(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 체결된 RTA는 약 147개로 현재 197개의 RTA중 약 75%에 달함)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로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일종이며 대다수를 차지함

- 2006년 7월 현재 발효중인 RTA는 총 197개로 GATT에 통보된 것이 50개, WTO에 통보된 것이 147개 이며, RTA 참가국 및 지역들의 교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연대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 추이 >

(단위 : 건)



자료 : 세계무역협회.

< 참고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① 자유무역협정(FTA) : 회원국간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EFTA, NAFTA 등)
② 관세 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MERCOSUR, 베네룩스 관세동맹 등)
③ 공동 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Single Market)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EU)

○ (부정적 효과 극복 가능성) 일부이기는 하지만 개방화에 따르는 국내 시장 잠식 정도가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음

- 사례 1 : 웰빙 트렌드로 국산 농수산물 수요 급증
  - 최근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시비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정부의 친환경, 무농약 제품 인증 제도의 확산됨에 따라,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

- 사례 2 : 수입산 쌀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외면
  - 미국산 칼로스 쌀, 중국산 1등급 쌀에 대한 공매에서 낙찰이 되지 않는 등 수입쌀이 국내 시장에서 극도의 판매 부진을 나타냄
  - 이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국내산 쌀의 맛에 길들여진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taste)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소비자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꾸준한 품종 개량을 통해, 개방화에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인식되는 쌀 시장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제시

- 사례 3 : 기술집약적 재배 방식으로 파프리카(피망의 일종으로 피망은 녹색인데 비하여, 파프리카는 빨강, 노랑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짐) 수출 확대
  - 파프리카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80%가 수출
  - 일본 시장에서 네덜란드를 제치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

2. 한미 FTA의 추진 상황

○ 2006년 7월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폴, EFTA와 FTA가 체결되었으며, 현재 ASEAN,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 더불어 미국과의 FTA가 협상 진행 중임

○ (우리나라의 FTA 추진 개요) 2006년 7월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폴, EFTA의 3개국(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약 20개국 이상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

- 旣 체결 및 후속 조치중인 FTA :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1일 발효, 한싱가폴 FTA는 2006년 3월 2일 발효되었으며, 한EFTA는 2006년 9월 1일 발효 예정

< 참고 >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

- 협상 진행 중인 FTA : 일본 (2003년 10월 협상 개시), ASEAN (2004년 11월), 캐나다 (2005년 7월), 멕시코 (2005년 9월), 미국 (2006년 2월) 등

- 공동 연구 진행 중인 FTA :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CEP) 협정 타당성 검토, MERCOSUR와의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 민간 차원의 한중일 FTA 및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 진행

< 참고 > FTA보다 발전된 형태의 경제 동반자 관계 협정

- CEP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 : FTA +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 협력까지 포괄
  · 예) 일본-ASEAN CEP, 인도-ASEAN CEP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 동반자 관계) : FTA +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인적 자원 이동까지도 포괄

○ (한미 FTA 추진 상황) 올해 2월에 공식 개시되어 현재 2차 본협상까지 진행 중이며, 정부는 TPA 만료 시한과 美의회 검토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내년 3월을 협상 타결 목표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음

- 진행 상황 : 한미 FTA는 올해 2월에 협상이 공식 개시되었으며, 1차 본협상(6월 워싱턴), 2차 본협상(7월 서울) 이 개최됨

- 향후 일정 : 오는 9월 미국에서 3차 본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함
  - 우리 정부가 내년 3월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美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TPA가 6월말 만료되어, 미 의회가 협정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최대 3개월)을 감안한 것임
  - 정부가 계획된 시한 내에 협상이 타결이 될 경우, 이후 양국 의회 비준을 거쳐 2008년중 발효될 가능성이 높음

> < 참고 > 신속협상권한(TPA : Trade Promotion Authority)
>
> - 美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통상 협상 권한으로, 이 경우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통상 협정에 대해서 내용 수정은 할 수 없고 단지 승인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음

< 한미 FTA 주요 경과 >

일 시	주요 내용
2005. 2.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 (서울)
2005. 3.	사전실무점검회의 제2차 회의 개최 (워싱턴)
2005. 4.	사전실무점검회의 제3차 회의 개최 (워싱턴)
2005. 9.	美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2006. 2.	**한미 FTA 추진 발표**
2006 .3.	제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 4.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 6.	제1차 본회의 개최 (워싱턴)
2006. 7.	제2차 본회의 개최 (서울)
2006. 9.	FTA 제3차 본회의 개최 예정 (미국)

자료 : 외교통상부.

3.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의 강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정부 추진 의지의 혼란, 국가 간 사전 공동 연구 및 민간 차원의 연구 부족, 협상 일정의 현실성 결여, FTA의 실익 제시 부족, 취약 부문에 대한 대응책 미흡, 대내 협상 불충분, 홍보 전략의 실패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남

○ (정부의 추진 의지 혼란) 정부와 여당 내에서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음

-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부처의 한미 FTA 비판, 여당 내 한-미 FTA의 부작용 우려 제기 등의 불협화음이 나타남

- 이러한 혼란은 한미 FTA의 당위성마저도 의심받을 정도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할 때, 정부조차도 한미 FTA에 대한 효과에 확신과 추진 의지가 없어 협상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높음

○ (국가 간 공동 연구 및 민간 차원의 연구 부족) 기 체결된 FTA나 진행 중인 FTA의 경우 민간 차원의 연구, 양국간 공동 연구 과정이 수년 간 진행되었으나, 한미 FTA의 경우 그러한 과정이 매우 미흡함

- **한-싱가폴의 産官學 공동 연구** : 2006년 3월에 발효된 한싱가폴 FTA는 이미 2002년 양국 간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발족하여 FTA의 타당성을 검토
  - 2002년 10월 한-싱가폴 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추진하기로 합의
  - 이후 2002년 11월 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에 합의하였으며, 2003년 3월, 7월, 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10월에 6개월간의 활동 종료 후, 조속한 정부 간 협상 개시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함

- **한-EFTA의 공동 연구** : 2006년 9월 발효 예정인 EFTA와의 FTA는 약 2년여 전인 2004년 5월에 한EFTA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함
  - 2004년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제네바, 서울을 번갈아 가며 공동 연구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한EFTA FTA 공청회가 서울에서 개최됨

- **한-ASEAN의 전문가 그룹 구성** : 200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전인 2003년 10월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합의
  - 2004년 3월~8월에 다섯 차례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 공동 연구 결과를 승인하고 정상에게 공식협상 개시를 건의함

- **한-일 FTA의 민간 연구 및 교류** : 2003년 10월 한일 양국 정상간 공식 협상 개시 합의가 있기 전인 1998년 11월 민간 연구 기관 간 공동 연구가 시작됨
  - 1998~2000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간 한일 FTA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공동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일 FTA 심포지엄이 개최됨
  - 또한 2000년 9월 FTA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양국 경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설치를 합의하고, 2001년 5월에 구체화됨 (한국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일본 : 우시오전기 회장)

< 민간 차원의 한일 FTA 공동 연구 과정 >

일 시	내 용
1998. 12~2000.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공동 연구 시행
2000. 5.	한일 FTA 심포지엄(서울) -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결과 발표
2000. 9. 23	양국 정상간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설치 합의(일본)
2000. 9. 28	한일 FTA 심포지엄(동경) -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결과 발표
2001. 5.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구성
2001. 9.	한일 비즈니스 포럼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2. 1.	한일 비즈니스 포럼 제2차 회의 개최(동경)
2002. 2.	한일 FTA 관련 세미나 개최 (서울)
2002. 3.	양국 정상,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
2002. 6.	한일 FTA 세미나 (서울)
2002. 7.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1차 회의 (서울)
2002. 10.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2차 회의 (동경)
2002. 12.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3차 회의 (부산)
2003. 2.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4차 회의 (동경)
2003. 4.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5차 회의 (서울)
2003. 5.	한일 FTA 종합토론회 (서울)
2003. 7.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6차 회의 (후쿠오카)
2003. 9. 2~3.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7차 회의 (서울)
2003. 9. 19.	한일 FTA 공동연구회 최종 보고서 문안 협의 (동경)
2003. 9. 30.	한일 FTA 세미나 (서울)
2003. 10. 2.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8차 회의 및 최종보고서 채택 (서울)

자료 : 외교통상부.

○ (협상 일정의 현실성 결여) 미국과의 FTA를 약 1년 여 만에 타결할 경우, 많은 협상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졸속 협상이 될 우려가 높음

- 한미 FTA는 양국 간 이견 차, 이해 집단의 반발 등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07년 3월까지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특히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FTA 협상 타결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칠레 FTA가 협상개시부터 타결까지 기간만도 2년 10개월이 소요
  - 한일 FTA의 경우에도 2003년 10월 공식협상이 개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
  - 다만 싱가폴, EFTA 등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FTA 협상은 단기간 내에 끝남

< 주요 FTA 협상 소요 기간 >

국가	협상 개시	타결	협상기간	비 고
韓美	**2006. 2.**	**2007. 3.**	**1년 1개월(계획)**	**現 본회의 2번**
韓칠레	1999. 12.	2002. 10.	2년 10개월	본회의 6번, 상품양허안 회의 2번
韓싱가폴	2003. 10.	2004. 11.	1년 1개월	본회의 5번
韓EFTA	2004. 12.	2005. 7.	7개월	본회의 4번
韓日	2003. 10.	미정	現 2년 9개월	본회의 6번
韓멕시코	2005. 9.	미정	現 10개월	본회의 3번
韓캐나다	2005. 7.	미정	現 1년	본회의 6번
韓ASEAN	2004. 11.	미정	現 1년 8개월	본회의 13번

자료 : 외교통상부.

○ (한미 FTA의 실익 제시 미흡) 정부가 제시한 한미 FTA의 효과는 추상적이고 매크로적이어서 FTA 반대론에 대한 대응 논리가 매우 취약하여,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함

- 개방화의 확대는 경제 전체로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만, 산업간, 경제 주체 간에 득과 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정부가 내세우는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는 거시적, 추상적, 비경제적인 데에 그침
  - 거시적 :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 국내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등
  - 추상적 :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글로벌화 촉진, 외국인 투자 증대에 따르는 기술 이전, 선진 경영 기법 도입 등
  - 非경제적 : 한미 외교 안보 강화,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

○ (취약 부문에 대한 대응책 미흡) 정부의 개방화 확대에 따르는 비교 열위 부문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보상과 같은 미봉책 위주에 그침

- 개방화 확대의 본질은 비교우위론에 따르는 국가 간 분업에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취약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함
  - 특히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을 경쟁력 우위 부문으로의 이동 과정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 외환위기 직후 상황에 버금가는 실업 대란이 불가피함

- 그러나 정부의 개방화 대응 정책은 생산력 확충이나 소득 보전과 같은 산업과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 내 산업간 인력 이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하여 1992년부터 2004년까지 87조원의 투·융자사업을 시행했으나 도농 간 소득 격차만 발생
  - 올해 3월 조정된 10개년 농업 농촌 종합 대책(119조 원 투융자계획)은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위주로 수정

○ (대내 협상 불충분) FTA 협상 추진 이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 사회 내 갈등과 반목이 증폭됨

-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체결 이전에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과의 FTA 추진 준비 과정에 비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설문조사도 시행되었으나 경제 단체에만 국한되어, 일반 국민들이나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못함

- 특히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추진이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인 2월 2일에야 공청회가 처음 개최되었으며, 그나마도 농민 단체들의 반발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홍보 전략의 실패) 아직 협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협상 과정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이나 협상 결과에 대한 공개 수준이 미약하여, 여론의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이 발생함

- 특히 정부의 2차례의 공식 한미 FTA 협상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민감한 사안의 경우 구체성을 가지지 못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됨

- 오히려 일부 언론들의 추측성 보도에 대한 정부의 반박 자료를 통해서야 국민들이 정부의 입장과 협상 내용을 알게 되는 현상이 발생함
  - 예를 들어 FTA 협상의 4대 선결 조건(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값 재조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문제 제기 등

4. 보완 과제

○ 정부는 향후 FTA를 추진함에 있어,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 제시, 구조 조정에 대한 로드맵의 구체화, 여유 있는 협상 일정의 재조정, FTA보다 낮은 수준의 무역 협정 고려, 적극적인 국민적 합의 도출, 의혹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추진 의지의 명확화 등이 요구됨

- **추진 의지의 명확화** :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한미 FTA에 대한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혼선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정부 및 여당 내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경우 자기 부처의 이해관계나 여론에 밀려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야 할 것임

- **민간 연구 및 한미 공동 연구 추진** : 지금이라도 업종별 영향 평가 대책반 운영, 한미 경제인 FTA 포럼 구성 등 한미 FTA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무리한 협상 추진 지양** : 협상 일정과 협상 수준에 대해 유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무리하고 졸속적인 협상 추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 **여유 있는 협상 일정의 재조정** : 2006년 3월의 협상 타결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의 장기화도 염두에 둔 여유 있는 일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FTA보다 낮은 수준의 무역 협정도 고려** : 전 품목에 대한 일괄 타결을 전제로 하는 FTA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SECA와 같은 낮은 수준의 무역 협정, 5단계 양허안의 적극적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한-멕시코 간 추진되고 있는 SECA (전략적 경제 보완 협정,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는 합의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 또는 폐지
  - 5단계 양허안 적극 활용 : 양국 정부는 일부 품목에 한해 시장 개방 시기

를 관세 즉시 철폐, 3년 이내 철폐, 5년 이내 철폐, 10년 이내 철폐, 기타 등 5단계로 세분화하는 안에 합의

- **FTA의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 제시** : 국제 무역의 확대가 국가 경제 전체는 물론 개별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우리 국민들은 실업 대란과 같은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개방화에 따르는 막연한 불안 심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 따라서 개방화가 국민들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민생 경제의 변화를 제시하여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할 것임

- **산업 구조조정 전략 수립** : 비교 열위 부문에 대한 소득 보전,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필연적인 구조조정에 따르는 해당 부문 종사자들의 취업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함

- **적극적인 국민적 합의 도출** : 피해 산업과 해당 부문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民官간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불필요한 의혹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무엇보다도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정부의 협상 추진 과정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 원 연구위원(3669-4030, juwo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청년실업률 8%로 급등

○ 6월 실업률은 취업자수는 5월에 비해 1만 7,000명이 증가하였으나, 실업자 수가 3만 6,000명 증가함에 따라 5월의 3.2%보다 상승한 3.4%를 기록

비경규직, 청년 실업, 좋은 일자리 부족 등의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 지속

- 6월 현재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가 758.5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571.6만 명의 48.3%를 차지함
- 또한 15~29세 청년 실업자 수가 36.9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81.9만 명의 45.1%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전월보다 0.9%p 증가한 8.0%를 기록함

하반기 경기 하강으로 고용 시장의 추가 악화 우려

- 특히 구직단념자도 전월 대비 1만 7,000명 급증한 12만 2,000명에 달하고 있어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도 심각
- 하반기 경제 상황이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고용 시장 부진이 지속될 전망임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5월	6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3.2(1.4)	4.5(1.6)	5.3(1.6)	6.1(1.2)	-	-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3.4	4.4	6.8	5.0	5.8	-
		설비투자추계	1.4	3.2	1.4	1.1	7.0	4.3	2.1	-
		건설수주	-3.9	9.5	38.5	15.8	-17.9	-9.7	-17.9	-
		수출	31.0	12.0	9.0	15.4	11.4	10.6	20.3	19.2
	공급	산업생산	10.2	6.3	3.5	7.1	10.3	12.0	11.6	-
		취업자수 (만명)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8	**2,350**
		실업률 (%)	3.7	3.7	3.7	3.6	3.5	3.9	3.2	**3.4**
		수입	25.5	16.4	15.2	21.1	14.6	19.0	23.0	22.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282	166	26	27	54	-11	13	-
		무역수지 (억$)	294	232	60	49	61	18	18	23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0	2.3	2.5	2.3	2.4	2.6
		생활물가	4.9	4.1	4.5	3.4	3.4	2.6	2.9	3.4
심리		소비자기대지수	86.5	103.0	97.8	99.1	103.0	103.4	98.0	97.4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

○ (해외 금융시장)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

- 금리 : 美 6월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 하회(0.3%, 예상: 0.2%) 등에도 불구 연준 의장의 향후 경기 둔화에 따르는 장기 물가 억제 가능성 언급으로 추가적인 정책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며 소폭 하락 (美 국채 10년물 : 5.06% → 5.05%)
- 환율 : 미국의 8월 정책 금리 인상 기대 약화에도 불구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 ($/€ : 1.2690→1.2587, ¥/$:115.84→116.89)

○ (국내 금융시장)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주가 급락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빚어져 달러 자산 수요 증대로 국내 주가 하락 및 원/달러 환율 상승

- 주가 :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정세에 따른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하락 (1,255.1→1,233.7)
- 금리 : 한은 총재의 물가 상승 압력 우려 발언에도 불구 미국 장기 금리 하락,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소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91%→4.89%)
- 환율 : 수출업체들의 네고물량 출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달러 자산 수요 증대 등으로 소폭 상승 (전주 말 953.8→957.8)

○ (전망)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 상승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4	2005				2006		
			1/4	2/4	3/4	4/4	1/4	7.14	**7.19**
국내	거래소 주가	895.9	965.7	1,008.2	1,221.0	1,379.4	1,359.6	1,255.1	**1,233.7**
	국고채3년(%)	3.28	3.91	4.02	4.60	5.08	4.93	4.91	**4.89**
	원/달러	1,035.1	1,015.5	1,025.4	1,041.1	1,011.6	971.6	953.8	**957.8**
해외	DOW	10,783	10,504	10,275	10,569	10,718	11,109	10,846	**11,011**
	Nikkei	11,489	11,669	11,584	13,574	16,111	17,060	14,845	**14,500**
	미국채10년(%)	4.22	4.48	3.91	4.32	4.39	4.85	5.06	**5.05**
	일국채10년(%)	1.44	1.33	1.17	1.48	1.48	1.78	1.77	**1.85**
	달러/유로	1.3556	1.2964	1.2108	1.2026	1.1849	1.2118	1.2690	**1.2587**
	엔/달러	102.56	107.15	110.92	113.51	117.75	117.78	115.84	**116.89**
	두바이($/배럴)	33.11	45.91	52.09	56.32	53.19	59.16	71.77	**68.54**